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에 대한 폭력

정희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성폭력은 강간 등 성적인 폭력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여 성차별이라고 하듯이, '여성폭력 gender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말한다.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폭력철폐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gender' 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는데, 그에 따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구타, 성적 학대, 강간, 생식기 절단, 착취 등)
- 2)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강간, 성희롱과 위협,

인신매매, 강제 매춘)

- 3)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 4) 무력 분쟁 하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살상, 강간, 성적 노예화와 강제 임신)
- 5) 임신 관련 폭력(강제 불임, 강제 낙태, 피임제의 강제적 사용, 여아 영아살해, 성별 태아 살해)
- 6)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소수 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자, 노인, 감금되어 있는 여성,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이 밖에도 포르노, 음란 전화, 성기 노출, 황산 테러, 성희롱, 여아 낙태, 근친 강간, 마녀 사냥, 지참금 살인, 음핵 절개, 신부 불 태우기 bride burning, 아내 순사 殉死, 전족 纏足,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 등도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은 가부장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시대와 지역, 계급과 인종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여성이 겪는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은, 서구에서도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은 너무나 오랫동안 거리낌없이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서 자연스런 일상 문화의 일부가 되어 왔다.

다른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폭력 문제 역시 성차별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까지 폭력 개념은 항상 남성 중심으로 논의됐고,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다. 때문에 여성은 자신이 당하는 폭력을 폭력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사회적 인식도 그랬다. 남성이 당하는 폭력과는 달리 여성의 몸에 행사되는 폭력의 특징은 그것이 '성애화 sexualized' 된다는 데 있다. 여성폭력은 성애화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아닌 '본능'이나 남성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왜곡·축소되어 왔다. 남성이 여성에 가하는 폭력은 남성이 남성에게 행하는 폭력과는 달리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성문화 특징 중 하나는 남성 성기 중심성인데, 이 때문에 여성폭력 개념 역시 남성 성기 중심으로 정의된다. 문제는 남성 중심적인 여성폭력 개념이 (피해) 여성의 경험이나 여성의 인권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 문제됐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이화여대 축제 난동 사건이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년 동안 일부 고려대 학생들은 매년 5월 이대 대동체에 집단적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행사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대 학생들과 여성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여론은 '남학생들이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여성폭력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 사건을 학생들의 '장난'이나 '낭만'이라고 보았다. 이는 여성폭력을 남성(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은 여성 공간의 침해, 여성 자율성의 침해, 실질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명백한 여성 폭력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평화시 남성 중심적이고 성별화된 이 같은 일상적 '놀이' 문화는 바로 전쟁시에 집단 강간이나 집단 학살 같은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¹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폭력의 범주는 직접적, 가시적, 신체적인 의미의 폭력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도 아니면 소위 '정조 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남성의 성기 삽입' 같은 통념처럼,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부합할 경우에만 폭력으로 인정됐다. 여성 스스로가 폭력으로 느끼거나, 성차별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나타나는 성적·심리적·정서적·경제적 억압에 대해서는 여성폭력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즉, 이제까지 여성폭력 개념은 (피해) 여성의 경험과 시각에 근

1 Maria B. Ouljic, "Embodiment of Terror: Gendered Violence in Peacetime and Wartime in Croatia and Bosnia/Herzegovina," *Medical Anthropology*, Vol. 12, No. 1., March, 1998.

거한 것이 아니라 (가해) 남성 중심적 담론에 근거해 정의되어 온 것이다.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규정됐는데, 이는 여성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폭력 개념을 정의하는 남성 중심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² 여성이 남편에게 강간당하거나 구타당하는 것은 '집안 일' 이지만 경찰, 안기부 등 국가 기관에게서 당하는 폭력은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나 애인에게 당하는 폭력이나 공권력에게서 당하는 폭력이나 모두 똑같은 폭력이며 정치적인 사건이다. 여성폭력이 여성이 겪는 고통과 억압에 근거해 개념화되지 않고, 남성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사건은 '집안 일' 로 선별되는 것이다.

1970년대 교회 여성들의 선구적인 기생관광 추방운동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여성폭력 추방운동은 1980년대 가정폭력(아내 구타), 강간 등 여성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러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가 됐다. 이는 그간 여성운동가들의 노력, 여성학의 확산, 국제여성운동과의 연대 등 여성 스스로의 투쟁에 의한 결과이다. 여성들의 국제연대운동의 성과로 한국 사회는 기존의 협소한 시각에 국한되어 있었던 여성폭력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성폭력 실태 파악에 개입된 성별 정치

한국 사회에는 소위 '압축 성장' 이라 불리는 획일적인 근대화 과정, 오랜 군사독재 등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다. 우리 사회는 폭력 허용도가 높으며, 폭력을 갈등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힘들었

2 이 사건의 성격은 공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다. 학교 폭력이나 조직 폭력배의 폭력,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지역 갈등으로 인한 폭력,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지만 여성이 당하는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고용 차별, 정치에서 여성 배제 문제와 같이 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성 억압은 상대적으로 사회 문제화가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사적인 곳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폭력은 민족 모순이나 계급 모순 등 기존의 정치적 모순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문제이다. 여성폭력의 발생 정도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민주화' 수준보다는, 여성 세력화 정도와 가족, 성과 사랑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³ 여성폭력은 계급 문제로 인한 억압이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폭력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 한국보다 여성폭력 관련법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미국에서도 법적,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권리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 지위가 낮은 곳이나 높은 곳에서 모두 가정폭력이 빈발했다.⁴ 이는 여성에게 권력이 없어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가부장제 구조 붕괴에 위협을 느끼는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폭력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유명 연예인의 가정폭력 피해 사건은, 여성에게는 다른 어떤 사회적 권력보다도 성별 권력이 더 압도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공적 영역에서 지

3 여성폭력은 현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0년대 소련 타지크 공화국에서는 첫날 밤 신부의 순결 검사 관습과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분신 자살하는 여성들이 1년에 30~40명에 이르러 그들을 '살아있는 등불'이라고 불렀다. 하니 로젠버그, 최광렬 옮김, 『소련 여성과 페레스트로이카』, 한울, 1991, pp. 53~55.

4 Kersti Yllo and Murray Straus(1984); John Archer, "Power and Male Violence," *Male Violence*, London: Routledge, 1994. 재인용.

위가 높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사적 영역에서 남성과의 성역할(성별 권력) 관계에서는 취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여성의 현실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가족, 섹슈얼리티, 친밀감, 사랑 등 흔히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사회 문제는 공식 통계에 드러나기 어렵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지적 패러다임에 의해 제한되기 마련이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의 가치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에 의한 선택의 문제를 함의하며, 선택의 원리에는 권력 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억압이나 폭력은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성 폭력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문제이다. 여성폭력의 비가시성, 은폐성은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폭력은 여성운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적 대책이 마련될수록 증가하는 속성이 있다. 해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할수록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특정한 시각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사실'로 인지되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 자체에 이미 성별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정확한(객관적인) 실태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 조사자가 생각하는 여성폭력 개념과 피해 여성이 생각하는 폭력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사자는 남편에게 뺨 한 대를 맞은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폭력 허용도가 높고 가부장적 권력이 강한 사회에서 그 정도를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피해 여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낙태, 여성폭력, 가정폭력, 간통, 혼인빙자 간음 등 여성폭력이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는 특징 중 하나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일상에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 관련법은 사문화 死文化된 것이 많다. 여성폭력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허용된다. 그래서 성매매(윤락)의 경우 그런 행위가 불법 인지조차 모르는 남성들이 많다. 대개 한국 남성들은 섹슈얼리티에 관련해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인식이 없다. 가부장적인 성문화는 남성들에게,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자연스런 남성의 권리임을 부지불식중에 각인시킨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한 해에(2000년) 전국적으로 1시간 17분에 한 번씩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⁵ 2002년 경찰청에 신고된 여성폭력 사건은 총 1만1천5백80건으로 이중 4천6백59명만 구속됐다.⁶ 그러나 '순결 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으로 여성폭력 신고율이 실제 발생률의 2%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역산하면, 실제 여성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약 90만 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도 정확한 실제 발생율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래 표⁷와 같이 연구자마다 가정폭력 통계가 다른 것은, 조사자의 여성 의식이나 가치관, 조사 방법이 폭력 여부 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발생률은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외국의 가정폭력 상황도 우리와 비슷하다.⁸

5 『한겨레』, 2001년 7월 24일.

6 『한겨레』, 2003년 1월 23일.

7 표의 수치는 조사 시점, 범위, 방법, 척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며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표는 아래의 자료를 필자가 수정·첨삭한 것인데, 특히 손정영의 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손정영,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도시 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8, pp. 11~12; 김재엽 외,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9, p. 6.

8 미국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약 42%는 이전 또는 현재의 파트너에 의해 죽는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태국은 50%를 육박하며 파키스탄에서는 전통적인 여성 억압 문화인 피다(purdah)의 영향으로 80%정도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다.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

연구자	년도	대상	지역	경험률(%)	비고
한국여성의 전화	1983	기혼여성 708명	서울	42.2	한국 최초 실태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기혼여성		61	
손덕수	1983	기혼여성 140명	서울	48.8	
김정옥	1985	기혼여성 673명	대구	44.7	성적폭력경험률 91.8
김경화	1986	기혼여성 564명	서울, 부산	1.553	5점 만점 기준시
이영숙	1985	부부 519쌍	서울, 전주	42.0	
이순형	1987	기혼여성 200명	서울	60	
김이화	1988	기혼여성 386명	대구	43.8	
김정옥	1988	기혼여성 511명	대구	51.5	
윤명숙	1988	부부 42쌍		92.8	알코올 중독자 대상
조연규	1989		전국	37.5	
김미옥	1989	기혼여성 336명	경북 농촌	61.3	
김갑숙	1990	기혼여성 521명	부산	45.7	성적폭력경험률 86.9
전형미	1990	기혼남성 290명	울산	55.9	
한국여성개발원	1990	1,094 가구	도시 빈민	28.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기혼남녀 316명	전국	37.5	
김정옥	1990	225명	대구	48.4	
김광일	1990	1,316명	전국	30.9	
김정옥 외	1992	기혼여성 203명	대구	38.9	성적폭력경험률 91.6
보건사회부	1992	기혼여성 7,500명	전국	61.0	

해 100,000건 정도 행해지고 95%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 아내구타는 강간, 자동차 사고, 강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외상의 이유이며 여성이 다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아내에 대한 폭력 경험률 조사(1986~93)에 의하면 칠레/에콰도르/스리랑카/탄자니아 60%, 일본 59%, 과테말라 49%, 우간다 46%, 케냐 42%, 벨지움 41%, 잠비아 40%, 말레이시아 39%, 캐나다 27~36%, 미국 28%, 노르웨이 25%, 네덜란드 21%에 이른다. Naomi Neft and Ann D. Levine,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rnational Report on the Status of Women in 140 Countries*, New York: Random House, 1997, pp. 151~164.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아내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베트남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와 비슷하며 미국의 소아마비 환자 모금 본부 March of Dimes에 의하면 임신 중 남편의 구타가 기형과 유아사망의 주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리처드 켈즈, 이동원·김지선 옮김,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1998, pp. 12~13.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5%는 '아내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했다(「日 여성들, 죽도록 맞는다: 기혼 20명 중 1명 '생명위협」, 『조선일보』, 2000년 2월 28일).

연구자	년도	대상	지역	경험률(%)	비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기혼남녀 1,200명	서울	45.8	남성 가해비율은 50.5
정복희	1993	기혼여성 225명	대구	44.4	
이영희	1993	기혼여성 408명	부산	42.2	
박경규	1994	기혼남성 642명	대구	35.8	
Shin	1995	이민남성 99명	미국 남부	37.0	캘리포니아 교민
정서영 / 김명자	1996	부부 328쌍	서울, 부산	44.8	성적폭력 경험률 78.1
김재엽	1997	기혼남녀 1,523명	전국	31.4	부부상호폭력 발생률
손정영	1997	기혼남녀 318명	대구, 서울	52.5	
대구매일신문	1997		대구	4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남녀노소 1,000명	전국	5.6	최근 1년간 발생률
법무부	1999	1,540가구	전국	34.1	

[출처]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또하나의문화, 2001. p. 37.

여성폭력의 원인

남성과 여성이 가진 권력과 자원의 차이, 남성 중심적인 법과 제도, 노동 시장의 차별적인 성별 직종 분리, 공사 영역에 걸친 여성의 이중 노동,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혼욕하는 일상문화 등, 주지하다시피 이런 성별 제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여성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듯이, 남성 역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많은 문화에서 남성들은 매일 매일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성이 되지 않는 것은 곧 인간이 되지 않는 것, 아니면 여성으로 '추락'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 사회의 의례들은 '진정한 남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록, 여성에 대해 지배적일수록 확실한 남성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는 '진정한 남성'이 여성을 다루는 방법으로 정당화되기 쉽다. 중요한 점은 많은 사회에서 남성성의 정의가 성적인 정복과 권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구사회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성교 횟수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한다거나, 10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윤간) 문화가 남성성의 획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이다.⁹ 남성적 '이상 ideal'은 폭력, 남성성,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 '터프하고자' 하는 욕망은 소년들에게 중요한 동기이며, 이는 남성으로 만들어지는 핵심적 과정이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부 문제적인, 비정상적인 남성의 우연적 행위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남성이 가진 체계적인 여성 통제 수단이자 권력이라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사회가 갖는 성역할 규범이나 성에 기반한 분리적인 문화와 연관된다. 인류학적 연구들에 따르면¹⁰ 성별에 대한 기준이나 규범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물었다. 이와 반대로 성별 구분이 분명하고 성별 분업이나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일수록 여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폭력의 형태도 광범위하다.

가정폭력을 예로 들어 한국 사회에서 여성폭력의 원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보자.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회적 통념과 그런 통념에 의존한 연구물들은 가정폭력을 '일탈' (비정상) 행위로 보면서, 주로 폭력 남편의 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해 왔다. 따라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되는데, 이때 주로 등장하는 상황들은 가해 남편의 의처증, 스트레스, 알코올,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분노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의 원인이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이런 행위 자체가 폭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폭력 당한 아내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오랜 폭력으로 인한 폭력의 결과(무기력, 보복

9 권수현, 「남성성과 여성폭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여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8, pp. 12~23.

10 Lori L. Heise, "Violence, Sexuality, and Women's Lives," *Conceiving Sexuality: Approaches to Sex Research in a Post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1995; Jacquelyn C. Campbell, "Wife Beating: Cultural Contexts versus Western Social Sciences," Dorothy Ayers Counts, Judith K. Brown, and Jacquelyn C. Campbell eds., *Sanctions & Sanctuary: Cultural Perspectives on the Beating of Wives*, Boulder, Col.: Westview Press, Inc., 1992.

의 두려움, 자아의식 상실, 판단능력 결여, 모순에 가득 찬 폭력대처 기술 등 피해 여성의 상태)를 마치 폭력의 원인인양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남성의 폭력 행동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문화를 지지하게 된다.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아내의 문제(‘맞을 짓’)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연구들은 가정 폭력의 90% 이상이 결혼 생활 3개월 이내에 시작¹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 심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명확히 성별화된 폭력인데도 성별의 문제가 가장 쉽게 간과 되는 대표적인 여성폭력이다. 부부 간에 대화기술 부족으로 폭력이 발생한다면, 왜 언제나 때리는 사람은 남성이고 맞는 사람은 여성일까.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에 때린다면 왜 직장 상사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안 때릴까. 술 때문에 때린다면 왜 아내들은 술을 먹고도 남편을 때리지 않을까. 남성의 분노처리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면 왜 그 분노를 언제나 ‘집안에서만’ 표출할까. 폭력 행위가 손실(형사상 제재, 이혼)보다 보상(분노 발산, 타인 통제)이 크기 때문에 사용된다면 왜 여성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 종교와 성격차이, 질투 등 부부 갈등 때문에 때린다면 왜 남성들이 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을 때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소위 IMF 경제 위기로 남성들이 실업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담론은 ‘스트레스 때문에 때린다’는 가부장적 통념을 더욱 강화하는 언설이다. 이런 설명 방식은 아내는 일자리를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남편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서울여성의전화, 『쉽터여 성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미간행), 1999; 허남순,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제2집), 을유문화사, 1993;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3; 한국여성의전화,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미간행), 1992.

을 때리지 않으며, 경제 위기 전후의 가정폭력 증감을 비교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제적인 답론이다.

가정폭력처럼 가해자 중심적인 시각이 가지적이고 체계적인 영역도 없을 것이다. 사회는 남성의 폭력 행동 자체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비판보다는 남성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에 초점을 둔다.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정폭력 현상은 성(차)별적으로 해석된다.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의 경험이 해석, 재현, 담론화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출발선이 다른 것이다.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질문 방식은 '왜 때리는가'가 아니라 '때릴 수 있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여야 한다.

가정폭력은 권력을 가진(가지려는) 자의 의도적인 통제 행위지만, 단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해석되지 못해 왔다. 가정폭력이 통역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근대의 발명품으로서 인간의 활동 세계를 공·사로 구분하는 관념에 대한 고찰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폭력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로크가 권위는 개인에게서 나온다고 개념화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에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은 가부장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공·사 영역 분리는 여성을 인간의 위치로 '격상' 시키는 것과 가부장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었다. 가족을 사회에서 제외시켜 사적인 영역으로 만들었으므로, 남성 가장은 사회에 대해 가족의 이해를 대표하게 됐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말은 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

근대 이전의 가정폭력이 결혼 제도의 여성 매매적 성격과 관련해 소유의 관념에서 주로 기인했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가까운 요소는 공·사 영역이 분리됐다는 인식이다. 남편(남성)이 아내(여성)를 때릴 수 있는 권리는 가정에는 권력, 정치, 인권, 민주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공·사 분리는 성별 분리와 분업을 기초로 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성별 분업은 성별 권력 관계의 다른 표현으로서 이는 평등한 분업이 아니라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배치이다. “여비서는 사무실의 아내이고, 아내는 집에 고용된 노동자다”¹²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는 실상 공적인 영역의 시각에서 사적인 영역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창조물로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의 대립을 통해서 정의된다. 공적 영역의 정치적·갈등적 성격에 비해 사적인 것은 동의가 전제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강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적인 것에 대한 이런 관념은 구타당하는 아내에게 ‘왜 떠나지 않는가?’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 공·사 분리 제도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형태로 국가,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된다. 공적 영역은 남성의 세계로 남성만을 주체로 세우기 때문에 여성이 공적 영역과 관계를 맺거나 경찰, 법 같은 공적 자원을 이용하려면, 가족 제도를 통해 남편을 매개할 때 가능하다.

이처럼 ‘개인 individual’은 성별화된 언어다. 여성의 경험이 사적인 문제로 할당되는 한, 여성은 사회적 주체·개인이 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보다 ‘누구의 아내’일 때 정상성을 획득하고 좀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된다. 이 점에서 폭력은 이미 가정주부 모델 그 자체에서 태어날 수 없는 일부분이 된다. 가정적인 여성이 된다는 것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외부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여성은 전체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대가로 한 남성과 결혼하는데, 바로 그 남성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은 사회도 당사자도 인정하기 힘들다.

12 Pauline Bart and E. G. Moran eds., *Violence Against Women: The Bloody Footprints*, London: Sage, 1993, p. 230.

여성들은 사적인 영역을 남성과 다르게 경험한다. 여성들에게 가정은 휴식처가 아니라 노동의 공간이며, 구타와 아내 강간이 일어나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이 권력 분석에서 배제된 것 자체가 권력 관계의 결과였으므로, 여성주의 이론에서는 사적인 것은 더 이상 사적이지 않다고 본다.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은 가장 사적인 성관계에서부터 공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정치·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선이며, 무엇이 공적이고 사적인가에 대한 규정은 권력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에 의존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공·사 경계는 남녀의 '생물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해 비역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남성 권력의 산물로서, 여성의 저항을 억압할 때 유지된다.

이처럼 공·사 분리 관념은 여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었다. 여성폭력이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적 영역의 사소한 문제라는 인식은 여성을 보편적인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구타 남편들이 '여자 하나 때린 걸 갖고 뭘 그러느냐', '나는 인간을 때린 것이 아니라 여자를 때렸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남성만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고 남성의 폭력을 방조, 지지하기 때문이다. 샤롯데치는 인권단체나 정부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1) 성차별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니면 생존 문제 다음에나 나오는 문제라는 인식, 2) 여성 학대는 문화적·개인적 문제일 뿐 국가가 취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3) 여성의 권리가 인권 문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인식, 4) 여성문제는 불가피하거나 너무 만연된 문제라서 노력해 봐야 성과가 나지 않는 문제라는 인식 등이 그것이다.¹³

여성폭력과 여성인권

여성폭력은 언제나 피해여성 개인의 고통보다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의 명예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유교 전통과 성의 이중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모두 범죄나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폭력이 여성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 민족, 국가의 명예 훼손으로 인식되는 이유와 구조는 무엇일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국민·민중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남성시민·남성국민·남성민중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하는 범죄가 아니라 남성들 간의 범죄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폭력은 그 여성이 소속(소유)된 남성이나 가족, 공동체,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서 남성의 '재산권' 침해를 의미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간통했거나 강간당한 것은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것은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⁴ 여성폭력에 대한 이런 관점은 현재에도 온존해 있으며, 이는 여성이 가족·국가·민족 등과 맺는 관계에 대해 논쟁적인 쟁점을 제공한다. 여성은 한 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나 도덕심, 순수성을 상징하는 기표인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명예나 도덕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면 여성은 피해 사실에 분노하기보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더럽힌' 존재가 된다.¹⁵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담론조차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여아 낙태는 여아와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염려

13 신혜수, 「여성관련 국제인권협약과 여성운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14 Neft and Levine, 앞의 책, p. 154.

15 반 보넌,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외 편, 『아시아의 여성인권: 무력갈등과 여성폭력』,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자료집, 1998.

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성비 불균형으로 '남자들이 장가 못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신대 문제는 피해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민족의 수치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도 피해 여성의 고통이나 고통보다는 남성 중심적 가족 유지를 더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한 폭력을 거론하는 여성은 공동체 내부의 치부를 폭로한 '배신자'로 간주된다. 여성폭력 피해를 문제화하려는 여성이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남자 앞길 망친 여자'라는 비난이다. 피해 여성들도 자신의 고통이나 피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족이나 직장, 조직,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명예를 더 먼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 여성의 고통보다 가해 남성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폭력이 인권 문제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공적 영역 중심, 남성 중심의 인권 개념은 물론이고 여성폭력 자체가 다른 시각에서 비판·재해석되고 있다. 여성폭력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면서, 국가 권력에게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근대적 인권 개념, 공적 영역 중심의 인권 개념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정치적 공간이라고 간주됐던 개인들 간의 억압 관계에도 인권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인권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이 인권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족주의 등 남성 중심의 공동체적 질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개인성을 획득하는 문제는 곧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현상의 사회적 인식은 필연적으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중재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남성)을 통해서만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획득해 왔던 여성이 국가·사회와 직접 협상하는 주체, 사회적 시민으로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성운동 진영조차 가족·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논의해 왔다.

‘모든 인간은 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개념은 성차별 사회에서는 모순적인 명제가 되어버렸다. 인간은 누구나 맞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 담론은 인간으로서 맞지 않을 ‘권리’ 보다 여성으로서 참아야 할 ‘도리’를 더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불의는 성역할로 정당화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되는 여성의 성역할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인종차별 사회에서 흑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관념적으로는 긍정적·진보적 가치로 간주되지만 여성인권처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주류 가치인 가족주의와 경합할 때는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이 되기 쉽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일상)문화를 고려할 때, 여성폭력방지법은 현실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급진적’ 법이기도 하다.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폭력 관련법이 제정된 뒤 국가에 대한 여성의 ‘의존’을 걱정했지만, 우리의 경우 여성폭력방지법들이 법안 그대로만이라도 집행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은 운동의 완성이라기보다 새로운 운동의 시작일 뿐이다. ■

정희진 out67@chol.com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경희대학교 강사. 저서로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탈영자들의 기념비- 한국사회의 성과 속, 주류라는 신화』가 있다.